

종단소식

조계종

18일 사찰 사무장 교육

총무원은 18일 오전 10시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사무장 교육을 실시한다. 종단 산하 일반사찰 사무장 및 경리직원이 참여하는 이번 교육은 총무원장, 사찰예결산 및 회계처리방법, 재산관리방법, 전법의 해 및 불속행사 관련사항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동화사 신도회장 최동원씨

대구광역시 신도회장 이취임식 및 제9교구 동화사 신도회장 취임식이 10일 낮 12시 동화사 통일대전에서 거행된다. 중앙신도회 출범으로 제9교구 초대 신도회장을 맡게 된 최동원회장(여, 73)은 김항원회장의 뒤를 이어 대구광역시 제6대 신도회장으로 취임하게 된다. 현재 최회장은 동원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선덕여왕송회 회장직도 맡고 있다.

태고종

1천4백여 사찰 등록

태고종 소속 2천여개 사찰중 70%인 1천4백여개 사찰이 종단 사찰로 등록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해 8월부터 시작해 재등록 마감시한인 지난 3월31일까지 총무원 및 지방 총무원에 등록된 사찰은 서울·인천·경기교구 소속 6백여개 사찰중 45%인 2백70여개 사찰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강원·충북·전남 등 전국 11개 교구의 경우 산하 1천4백여 사찰중 80%인 1천1백30여개 사찰이 재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불교대 포교사품수

강원불교대(학장 백운)는 3일 제8기 입학식 및 포교사 품수식을 거행했다.

1년과정의 8기 입학생은 모두 2백10명이며, 3년 과정을 수료한 33명이 포교사 자격을 품수받았다.

천태종

삼통사 20주년 기념법회

서울 삼통사(주지 경천)는 지난 6일 사부대중 6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20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또 진도 삼성사(주지 정공)는 지난 8일 1

백20평 규모의 대법당 기공식을 가졌다.

3사단 통일기원 점등식

총무원은 25일 오후 3시 육군 3사단 달공OP에서 '통일기원 호국광명등 점등식'을 봉행한다.

이날 점등식은 타종에 이어 사단장 인사, 북한동포에게 보내는 메시지 낭독, 다과회 순으로 진행되며, 금강불교대 합창단과 서울지역 사찰의 신도 2백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같은 날 충북 증평 태화사(주지 세운)는 관음보살상 봉축식을 봉행한다.

진각종

총인원서 춘기 스승강공

춘기 스승강공이 22일부터 24일까지 2박3일간 총인원에서 개최된다.

창종 50주년을 맞아 진각종 조 회당 대종사의 창종정신을 상기하고 시대에 부응하는 교화방법 확립을 목적으로 열리는 이번 스승강공은 '진호국가 불사로서 변혁의 바탕 세우기'를 주제로 모두 2백여명의 정사·전수사 교육에 참가한다.

25사단 509 OP점등식

총리원은 15일 오후 6시 육군 25사단 509OP에서 점등식을 봉행한다.

총리원장을 비롯해 종단 주요 간부 등 모두 1천여명이 참석하는 이날 점등식은 사단장의 환영사에 이어 총리원장의 봉축말씀, 여군사사의 북한동포에게 보내는 메시지 낭독 순으로 진행되며, CCTV카메라 등 각종 위문품을 전달한다.

불정심인당 현공불사

대구교구청 불정심인당(주교 회성정사)은 18일 오후 1시 심인당 신축을 축하하는 현공불사를 봉행한다.

이번에 낙성식을 갖는 불정심인당은 연 건평 3백24평으로 지하포함 3층 건물의 심인당과 2층 건물의 사택이 마련됐다.

일불선교종

고성 약수암 패불점안

강원 고성 금강산 약수암(주지 보혜)은 13일 약수암 패불 점안법회를 봉행한다.

이번에 봉안되는 패불은 만불스님(무형문화재 제48호)이 조성했다.

본지 20면 증편과 함께 각 종단의 주요 공지사항 행사 등을 알리는 '종단소식'란을 별도로 마련합니다. 각 종단 총무원 및 지방 총무원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게재해 드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02)737-0698



3월 30일 양주군 천보산 산물로 회암사지 선각왕사비(보물 제 387호)가 완전 파손됐다. 사진 오른쪽은 원래 모습.



천보산 나옹선사비 소실

산물로 보호각 무너져...문화재 관리 허점

천보산에서 3월 30일 발생한 산물로 회암사지 선각왕사비(보물 제 387호)가 완전 파손됐다. 이날 산물로 선각왕사비 목조 보호각이 산길에 휩쓸려 무너지면서 기둥과 기와가 탐비로 쏟아져 비신과 상륜부가 완전 파손됐다.

파해를 입은 선각왕사비는 높이 3.06m 너비 1.6m로 '선각'이 시호인 나옹화상을 추모하기 위해 고려 우왕3년(1377) 회암사에 세워졌다. 이 비의 비문은 고구려 광개토태왕비 이후 최초로 예서가 쓰였으며 당비(唐碑)의 형식을 닮은 북고종으로 비신 상부에 쌍룡을 조각했다. 특히 그동안 보존상태는 매우 좋은 상태였다.

한편 초속 5~8m의 강풍을 타고 회암사(주지 인묵)쪽으로 변전된 산물은 6시간동안 인근 입안 전

소했을 뿐 사찰에는 피해가 없었다.

표충사 발굴유물 공개

금동여래입상 등 51점

통일신라시대의 금동여래입상이 발견된지 1년7개월여만에 성스럽고 화려한 본모습을 찾았다.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김동현)는 95년 6월 경남 밀양시 표충사 3층석탑(보물 467호)에서 나온 금동여래입상(사진·높이 11.4cm, 폭 2cm) 등 총 51점의 유물을 과학적인 보존처리를 거쳐 지난 3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유물은 불상 19점과 청동 7점소탑 1점 등 51점으로 한 탐에서 다량의 불상이 시대별로 발견되기는 국내에서 처음이다.



원각사 찬불가 경연

광주 원각사 불일청년회(회장 김종주)는 지난 3월 28일 1백5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찬불가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사진)

이날 행사와 관련 김종주회장은 "부처님께 올성공양을 올리고 찬양함으로써 몸과 마음이 맑아지고



부서간의 화합을 이루고자 찬불가 경연대회를 열게 됐다"고 말했다. 9개팀이 출전하여 그동안 틈틈이 익힌 찬불가 경연대회에서 1등은 가습부, 2등 선정부 3등은 목건연부가 차지했다.(광주=주영희 기자)

지방소식

사찰 창건연대 바로잡기

전라남도에는 올해 주요사찰의 창건연대 바로잡기, 목포 문화재감정관실 설치, 해외 유출문화재 파악 등 문화재지킴이에 적극나설 계획이다.

백제 패망이전 창건됐음에도 신라연호를 사용하고 있는점 등 문제점을 감안, 전라남도는 최근 도내 4백65개 사찰대상으로 창건연대 바로잡기 조사에 착수했다. 또 문화재연구소견인과 불교미술전시회 등 문화행사 개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영동 영국사 복원

법주사와 함께 충청북도의 대표적 고찰인 충북 영동군 천태산 영국사(주지 청원)가 옛 모습을 되찾는다. 영국사는 올해 영동군으로부터 1

억3천만원의 지원받아 대웅전 및 요사채의 보수공사를 시작한다. 이어 내년부터는 옛 금당터를 발굴 조사하여 그 자리에 예전 모습대로 대웅전 건립불사를 벌이게 된다. 또 선원 및 명부전을 건립하는 한편, 만세루를 복원한 뒤 축대를 확장하고 도랑의 조경을 완성하면 영국사는 10년안에 예전 모습대로 돌아가게 된다.

제주 연합합창단 창단

제주불교계 합창단의 쌍벽을 이뤘던 바수바라밀다합창단(단장 문영자)과 관세음합창단(단장 채정희)이 통합, 연합합창단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92년 여불원, 관음사 부설로 각각 창단한 바수바라밀다·관세음합창단은 지난 3월 28일 모임을 갖고, "전문화합창단으로 재도약하기 위해 통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이날 모임에서는 (가칭) 연합합창단의 초대회장에 문영자 전 바수바라밀다합창단장을 선출했다.

"해인사의 모든것 세계유산"

유네스코 유적조사관 실바 내한

지난 95년 우리나라를 방문 해 불국사와 석굴암, 해인사 장경판전, 종묘를 조사하여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록시킨 바 있는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 스페인카지부 사무총장 실바씨가 3월 31일 내한했다. 지난 3일 실바씨(53)를 만나 골프장 건설로 훼손 위기에 있는 해인사 팔만대장경과 판전을 보존하기 위한 그의 의견을 들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해인사 부근의 골프장 건설로 팔만대장경과 판전이 훼손위기에 처해 있다. 문화유산에 위 존키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

레도록 보존되도록 도와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문화유산에 위협이 나타날 때 유네스코가 적

"한국인 보호의무...골프장건설엔 파괴"

야 하나. △골프장이 생긴다는 것은 해인사 주변의 울창한 수림을 파괴시키고 결국 얼벗은 곳으로 만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풍향을 변화시켜 주변의 생태환경을 교란시킨다. 세계 유산은 단지 장경판전만이 아니다. 해인사의 모든 것을 지경한 것이다. 해인사를 보호하는 것은 한국인의 의무이다.

국 대처할 수 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그랬다. 세계유산이란 한 국가에 포함된 것이 아니라 인류가 공유해야 할 자산이다.

-해인골프장 사태는 현재 사업주의 재산권 생각이 우선이나, 문화유산의 보호가 우선이냐가 쟁점이 되어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문화유산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95년 한국을 방문해 대장경과 판전을 처음 보면서 '통일된 하나의 세계'라는 강한 충격을 체험했다. 6백여년 동안 날씨가 변하고 사회적 격동을 겪으면서도 유지된 것은 이들 유산이 가지고 있는 철학과 인간적인 요소 때문이다. 유산에 담긴 선조들의 철학은 후손의 정신을 고양시키고 문화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다.

정성운·오종욱 기자

"수몰위기 인각사 살리자"

하이텔 토론방 의견 빚발...서명운동도

수몰위기에 처한 인각사를 살리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이텔이 3월 29일 인각사를 살리자는 토론방을 개설한 이후 지금까지 119건의 의견들이 올라오면서 서명운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김중민씨(하이텔 8949)는 토론방에 올린 글에서 "좀더 좋은 물을 먹고 호국정신이 깃들여 있는 역사의 땅을 덮어 버린다는 것은 우리 민족의 혼을 팔아 먹고 살겠다는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이혜숙씨(하이텔 kaya)는 "수백만 대구 시민과 사찰 하나 중 어느 것이 중요하리라고 물을 사람도 있었지만 수백만 대구시민이 중요하게 사찰 하나 계속 하나도 중요한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마음 가장 보람있는 농사

농법은 땅까지 밟아 나는 귀양이요 땅까지 향기가 나는 꽃이다. 그리고 수행자들은 그런 귀양을 키우는 농부요 그런 꽃을 재배하는 정원사나 할 수 있다. 모든 생산중에서 가장 맛이 나고 해로운 생산, 모든 농사 중에서도 가장 보람있는 농사가 바른 복밭 수행이다.

협찬 한마음선원 범행체회

부처님오신날 실법자료, 법보시책자 보급안내

스님이 들려주는 부처님오신날 이야기. 스토리텔링 형식의 책 소개.

스님이 들려주는 부처님오신날 이야기. 부처님오신날의 의미, 부처님의 탄생이야기, 등공양의 유래와功德, 관불의식의 유래, 불축법문 등을 신도님께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해서 수록하였습니다.

수록내용. 제1부 불축법요의식, 제2부 이야기 하나, 제3부 불축법문. 수록된 책의 상세한 내용 소개.

연등공양 이야기. 부처님의 탄생, 탄생이야기,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신 뜻, 관불의식, 인등의 유래와功德, 등불공양에 얽힌 이야기 등을 신도님께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해서 수록하였으므로 초파일 법회때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생애. 부처님의 생애를 출생, 출가, 성도, 교화, 열반 편으로 나누어 신도님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편집하였으며, 초파일 불축법회때 신도님들의 불심을 돈독히 다지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감로출판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3번지 ☎(02)723-4306, 723-4307, FAX. (02)738-8682. ▲ 표지에 사찰명을 넣어드립니다. ■ 크기/신국판(15.2cm×22.3cm) 80페이지 ■ 정가/1,500원